

간호대학생의 KCUE-Q1(Korean College & University Education Questionnaire)에 따른 비인지적 학습성과 Affective Outcome According to KCUE-Q1(Korean College and University Education Questionnaire) in Nursing Students

김옥현, 최은주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Ok-Hyun Kim(koh5625@hanmail.net), Eun-Ju Choi(cej1998@nate.co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고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며 간편한 KCUE-Q1을 활용하여 간호대학생의 비인지적 학습성과 수준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2013년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4개교의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인 3, 4학년 간호대학생 중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424명을 연구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비인지적 학습성과 성취수준은 평균 2.69점이었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학년, 소속 대학의 2주기 간호교육 인증평가 및 동아리 활동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학습열의가 높을수록 학습경험이 높아지고 교육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학 전공 학생들의 학습성과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교육과정과 비교과활동을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며, 이는 간호대학생의 간호학 학습성과 성취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중심어 : | KCUE-Q1 | 학습성과 | 간호대학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ffective outcome according to KCUE-Q1 in nursing students. The survey was performed with 424 nursing students of 3-year or 4-year that scheduled to graduate from colleg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e level of affective outcome was 2.69. The affective outcom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grade,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and club activity. Learning pass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learning experience and educational outcome. Learning experienc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leaning passion and educational outcome.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s a need to develop outcome-based nursing curriculum for nursing students. It is also necessary to evaluate affective outcome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 keyword : | KCUE-Q1 | Outcome | Nursing Student |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선진 국가들은 고등교육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육의 질과 학생의 교육성과 수준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1]. 우리나라도 대학교육이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 발전은 미흡하였음을 공감하고, 최근 대학 평가에 학생의 학습성과를 포함시켜 추후 대학 평가에 활용할 계획을 공지함으로써 학생들을 성장시키는데 대학이 관심을 갖도록 강조하고 있다[2-5].

학습성과는 학점,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교양 및 전공분야에서의 지식, 비판적 사고력, 분석능력, 글쓰기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지적 영역과 태도, 자아개념, 신념, 가치관, 대인관계 등 정의적 영역의 발달 내용을 포함한 비인지적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다[6][7]. 특히 학습성과는 학생들의 수업 성실도,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수업에 대한 능동적 태도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교육과정이나 동아리, 봉사활동, 대학의 학생지원이나 학습자원, 학습환경,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 등 대학 생활 중 경험하였던 다양한 요소들이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7-9], 최근 이를 반영한 평가 도구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통합능력을 갖춘 학생 개개인의 인지적 영역의 학습성과를 직접 측정하는 도구는 전공지식과 기술을 반영하기보다 일반적인 핵심능력을 측정하고 시간, 인력 및 노력이 많이 드는 고비용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추는 것도 쉽지 않아 매우 어려운 난제로 여겨지고 있다[8]. 이에 반해 비인지적 영역의 학습성과 측정 도구는 인지적 학습성과 측정 도구에 비해 다소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을 수 있으나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고 간편하며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과 학생을 평가한다는 이점이 있다[9].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는 자기보고방식의 설문방식인 Korean College and University Education Questionnaire [KCUE-Q1] 설문을 개발하여 타당도나 신뢰도 측면에

서 확신할 수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10] 학생의 능력 변화에 대한 인식 결과인 심리적 발달 즉 학습열의와 학습경험뿐만 아니라 대학만족도와 같은 교육성과를 반영한 비인지적 학습성과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기 위한 연구를 시도하였다[8].

이 같이 대학 교육의 질과 교육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간호교육은 4년제 간호학과,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3년제 전문대학 간호과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과도한 간호학과 신설 및 증설이 이루어져 단기간 내 학생 수가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간호교육의 질과 배출된 간호 인력의 수준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었다[11]. 이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사 핵심역량 7가지, 12개의 간호학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간호교육 프로그램 지침과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간호 교육기관은 간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졸업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여건을 파악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간호사의 전문역량을 함양시키고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12].

간호대학생 대상의 학습성과에 대한 국내 연구는 간호학 학습성과 성취도와 중요도를 파악하거나[11], 셀프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학습성과 향상을 유도하였음을 확인한 연구[13]가 시도되었다. 반면 국외 연구에서는 졸업 시에 성취해야 하는 학습성과와 평가 항목[14][15] 및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학습성과 평가방법을 제안하였고[16] 시뮬레이션 교육으로 학습성과가 향상되었으며[17], 특히 학제가 다른 간호학생의 실습교육 후 학습성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18]. 이렇듯 학습성과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12개의 학습성과 성취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무엇보다 교육과정에서 성취하기 힘든 학습성과의 경우 비교과활동 영역에 반영하기를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 영역의 성과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파악하여 전반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간호교육의 4년제 일원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문대학

의 간호교육 기본 교육과정이 전문대학 내 3년제, 수업 연한 4년제와 같은 다양한 학제가 공존하고 있어 이들 간의 학습성과 수준을 분석하여 해석하는 시도가 필요 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졸업예정자인 전문대학 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KCUE-Q1를 이용하여 비인지적 학습성과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비교과활동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간호학생들의 학습성과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과 비교과활동을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하고 궁극적으로 간호학 학습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KCUE-Q1을 활용하여 졸업예정자인 간호대학생의 비인지적 학습성과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비인지적 학습성과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인지적 학습성과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학습열의, 학습경험 및 교육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KCUE-Q1을 활용하여 간호학생의 비인지적 학습성과 정도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인지적 학습성과의 차이 및 학습열의, 학습경험, 교육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G시 2개와 J도 2개, 총 4개의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인 3, 4학년 간호대학생(3년제 전문대학 간호과 3학년,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4학년)을 연구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으며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다. 특히 대상자의 소속 대학은 모두 1주

기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이 중 2개교는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를 지정받아 운영 중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448명의 참여자 중 설문지의 내용이 불충분한 24명을 제외한 총 424명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상관관계 양측검정에서 유의수준 .05, 중간크기의 효과 크기 .30, 검정력 9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34명이 산출되어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생의 비인지적 학습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KCUE-Q1을 이메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위원장의 도구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연구 도구로 활용하였다.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대한 문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개발한 KCUE-Q1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성별, 학년, 나이, 소속 대학의 2주기 간호교육 인증평가 유무, 지난 학기 성적, 동아리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유무 등 총 7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2 비인지적 학습성과

비인지적 학습성과는 태도, 자아개념, 신념, 가치관, 대인기능 등 정적 측면의 발달을 의미하며[7], 태도뿐만 아니라 인식, 동기와 같은 특성과 함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속성으로[19], ‘학습열의’, ‘학습경험’과 ‘교육성과’, 총 3개의 하위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 학습열의

학습열의는 학생들의 수업 성실도,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수업에 대한 능동적 태도, 수업 전이 노력 등과 같이 학생의 학습에 대한 열정으로 학생들의 태도를 말하며[8], 본 도구는 수업활동 5문항, 수업외 활동 4문항, 상호작용 2문항의 3개 하위요소, 총 11문항이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열의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값은 .77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76이었다.

• 학습경험

학습경험은 학생이 이수하는 교육과정과 같은 교과영역뿐만 아니라 동아리활동이나 봉사활동 등과 같은 비교과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학생들이 실제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경험을 말하며[8], 본 도구는 교수의 질 7문항, 성적평가의 질 2문항, 대학교육의 질 4문항, 학생지원 8문항, 학습자원 5문항의 5개 하위요소, 총 26문항이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경험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값은 .91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89이었다.

• 교육성과

교육성과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습득 또는 발달하게 되는 성과를 말하며[3], 본 도구는 인지적 역량 9문항, 사회심리적 역량 6문항, 자기인식 2문항, 대학만족도 4문항의 4개 하위요소, 총 21문항이다. 인지적 역량, 사회심리적 역량과 자기인식 문항은 ‘매우 낮음’ 1점에서 ‘매우 높음’ 4점이며, 대학만족도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성과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값은 .87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88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자료 수집은 2013년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4개교 학과장에게 유선으로 동의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하는 동안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만 둘 수 있음을 알렸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15분이었으며 연구자는 작성된 설문지를 바로 회수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의 비인지적 학습성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인지적 학습성과의 차이는 ANOVA와 t-test로 비교하였으며, 사후 검증은 Scheffe 로 실시하였다. 학습열의, 학습경험 및 교육성과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378명(89.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3학년 졸업생이 339명(80.0%)로 4학년 85명(20.0%)보다 많았다. 또한 132명(31.1%)의 대상자는 소속 대학에서 2주기 간호교육 인증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답하였으며, 연령은 ‘22세~24세’가 295명(69.6%)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학기 성적은 ‘3.0~3.99’가 284명(67.0%)으로 가장 많았으며 ‘4.0 이상’이 91명(21.5%)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동아리 활동을 한 군은 267명(63.0%), 자원봉사 활동한 군은 367명(86.6%)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24)

항목	구분	n(%)
성별	남학생	46(10.8)
	여학생	378(89.2)
졸업 학년	4학년	85(20.0)
	3학년	339(80.0)
2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유	132(31.1)
	무	292(68.9)
연령	19-21세	102(24.1)
	22-24세	295(69.6)
	≥ 25세	27(6.4)
지난학기 성적	≥4.0	91(21.5)
	3.0-3.99	284(67.0)
	2.0-2.99	49(11.5)
동아리 활동	유	267(63.0)
	무	157(37.0)
자원봉사 활동	유	367(86.6)
	무	57(13.4)

3.2 비인지적 학습성과 정도

대상자의 비인지적 학습성과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평점 2.69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소인 학습열의, 학습경험과 교육성과 정도는 [표 2]와 같다. 학습열의는 평균 2.63점이며, 하위요소에서 수업활동 2.74점, 수업 외 활동 2.55점, 상호작용 2.52점으로 나타났다. 학습경험은 평균 2.67점이며, 하위요소에서 교수의 질 2.93점, 성적평가의 질 3.07점, 대학교육의 질 2.86점, 학생 지원 2.30점, 학습지원 2.59점으로 나타났다. 교육성과는 평균 2.74점이며, 하위요소에서 인지적 역량 2.56점, 사회심리적 역량 2.88점, 자기인식 3.06점, 대학만족도 2.76점으로 나타났다.

표 2. 비인지적 학습성과 정도

항목	하위요소	평균	표준 편차
학습열의	수업활동	2.74	0.50
	수업외활동	2.55	0.62
	상호작용	2.52	0.72
	소계	2.63	0.48
학습경험	교수의 질	2.93	0.39
	성적 평가의 질	3.07	0.84
	대학교육의 질	2.86	0.52
	학생 지원	2.30	0.67
	학습지원	2.59	0.78
교육성과	소계	2.67	0.46
	인지적 역량	2.56	0.45
	사회심리적 역량	2.88	0.49
	자기인식	3.06	0.62
비인지적 학습성과(전체)	대학만족도	2.76	0.61
	소계	2.74	0.39
		2.69	0.37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인지적 학습성과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인지적 학습성과 정도 차이는 [표 3]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인지적 학습성과는 성별, 학년, 소속 대학의 2주기 간호교육 인증평가 및 동아리 활동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가 여학생인 경우 남학생보다 비인지적 학습성과 정도가 다소 낮았고($t=3.66, p<.001$), 4학년이 3학년보다 비인지적 학습성과 정도는 높았다($t=6.30, p<.001$). 또한 대상자가 소속된 대학이 2주기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실시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t=5.29, p<.001$), 동아리 활동을 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비인지적 학습성과 정도는 높았다($t=8.55, p<.001$).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인지적 학습성과의 차이

항목	구분	평균 ± 표준편차	t/F(p)
성별	남학생	3.02±0.31	3.66 (.001)
	여학생	2.68±0.37	
졸업 학년	4학년	2.91±0.32	6.30 (.001)
	3학년	2.63±0.37	
2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유	2.82±0.34	5.29 (.001)
	무	2.62±0.37	
연령	19-21세	2.74±0.29	1.90 (.150)
	22-24세	2.66±0.40	
	≥ 25세	2.72±0.35	
지난학기 성적	≥4.0	2.74±0.37	1.39 (.243)
	3.0-3.99	2.69±0.36	
	2.0-2.99	2.61±0.47	
동아리 활동	유	2.80±0.31	8.55 (.001)
	무	2.50±0.40	
자원봉사 활동	유	2.69±0.38	0.60 (.549)
	무	2.66±0.39	

3개의 하위요소를 살펴보면[표 4], 학습열의는 대상자가 여학생인 경우 남학생보다 학습열의가 다소 낮았고($t=3.99, p<.001$), 4학년이 3학년보다 학습열의가 높았다($t=3.17, p=.002$). 또한 대상자가 소속된 대학이 2주기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실시한 군은 그렇지 않은 군보다($t=2.99, p=.003$), 동아리 활동을 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학습열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6.82, p<.001$).

대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학습경험 정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t=2.64, p=.009$), 4학년이 3학년보다($t=6.98, p<.001$), 소속 대학이 2주기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실시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t=5.46, p<.001$), 동아리 활동을 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t=7.30, p<.001$) 학습 경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성과 정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t=3.23, p=.001$), 4학년이 3학년에 비해($t=4.36, p<.001$), 소속 대학이 2주기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실시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t=4.03, p<.001$), 동아리 활동을 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교육성과 정도가 높았다($t=7.02, p<.001$).

반면 지난 학기 성적이 '4.0 이상'인 군이 2.79점으로 '2.0~2.99'인 군 2.60점보다 교육성과 정도가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76, p=.037$).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열의, 학습경험 및 교육성과 차이

항목	구분	학습열의		학습경험		교육성과		
		평균± 표준편차	t/F(p)	평균± 표준편차	t/F(p)	평균± 표준편차	t/F(p)	Scheffe
성별	남학생	3.10±0.55	3.99 (.001)	2.97±0.38	2.62 (.009)	3.05±0.27	3.23 (.001)	
	여학생	2.61±0.48		2.66±0.46		2.72±0.39		
졸업 학년	4학년	2.78±0.45	3.17 (.002)	2.97±0.44	6.98 (.001)	2.90±0.37	4.36 (.001)	
	3학년	2.59±0.48		2.60±0.43		2.69±0.39		
2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유	2.73±0.48	2.99 (.003)	2.85±0.48	5.46 (.001)	2.85±0.38	4.03 (.001)	
	무	2.58±0.48		2.58±0.48		2.69±0.39		
연령	19-21세	2.68±0.36	1.01 (.365)	2.73±0.42	1.34 (.264)	2.80±0.31	1.82 (.164)	
	22-24세	2.61±0.52		2.65±0.48		2.72±0.43		
	≥ 25세	2.69±0.54		2.71±0.41		2.74±0.35		
지난학기 성적	≥4.0 ^a	2.69±0.44	0.99 (.397)	2.71±0.46	0.59 (.617)	2.79±0.36	2.76 (.037)	c(a)
	3.0-3.99 ^b	2.61±0.48		2.67±0.45		2.75±0.39		
	2.0-2.99 ^c	2.64±0.55		2.59±0.52		2.60±0.49		
동아리 활동	유	2.74±0.42	6.82 (.001)	2.79±0.39	7.30 (.001)	2.84±0.36	7.02 (.001)	
	무	2.43±0.52		2.47±0.50		2.57±0.41		
자원봉사 활동	유	2.64±0.48	1.12 (.262)	2.67±0.45	0.03 (.974)	2.75±0.40	0.81 (.421)	
	무	2.56±0.49		2.67±0.51		2.70±0.37		

3.4 학습열의, 학습경험 및 교육성과 간의 관계

학습열의는 학습경험($r=.50, p<.001$), 교육성과($r=.51,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경험은 교육성과($r=.63,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학습열의, 학습경험 및 교육성과 간의 관계

변인	학습열의	학습경험	교육성과
학습열의	1		
학습경험	.50(.001)	1	
교육성과	.51(.001)	.63(.001)	1

IV. 논의

본 연구는 졸업예정자인 간호대학생의 비인지적 학습성과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비교과활동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비인지적 학습성과는 4점 만점에 평균은 2.69점이며 하위요소인 학습열의 2.63점, 학습경험 2.67점, 교육성과 2.7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측정도구로 10개 대학의 2,497명 대학생을 대상

으로 측정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8]의 연구에서 비인지적 학습성과 2.77점, 하위요소인 학습열의 2.66점, 학습경험 2.79점, 교육성과 2.80점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비인지적 학습성과 성취수준은 일반 대학생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교육기관별로 차이는 있으나 성과기반 교육과정이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습성과 개념을 포함한 2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가 도입된 지 2년 남짓한 시점에서 타 전공의 일반 대학생과 간호대학생의 비인지적 학습성과에 큰 차이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학습성과는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특정의 가치 및 믿음의 변화와 발달인 점을 감안할 때[7] 간호교육기관의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학생이 학업을 유지하는 동안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활동 장려와 비인지적 학습영역을 교육과정에 포함함으로써 간호대학생 개인의 비인지적 학습성과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비인지적 학습성과의 3개 하위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열의는 평균 2.63점이며, 하위요소별로 수업활동 2.74점, 수업외 활동 2.55점, 상호작용 2.52점 순으로 나타나 수업활동 2.88점, 상호작용 2.68점, 수업외 활동 2.37점으로 보고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점수로 나타났으며 수업활동 영역의 점수가 높다는 연구 결과는 일치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수업의 활동과 관련된 문항 중 '나는 자원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74점으로 나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47점보다 높게 보고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적응을 위해 많은 간호대학에서 전공과 연계한 봉사활동 교과목을 운영하거나 개인의 봉사활동 참여로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적용하고 직업에 대한 선행경험을 함으로서[20-22] 자원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자세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학습열의를 고취시켰으리라 사료된다.

학습경험은 평균 2.67점이며 하위요소는 성적 평가의 질 3.07점, 교수의 질 2.93점, 대학교육의 질 2.86점, 학습자원 2.59점, 학생지원 2.30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수의 질 2.90점, 대학교육의 질 2.88점, 성적 평가의 질 2.86점, 학생 지원 2.68점, 학습자원 2.69점 순으로 보고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8]의 연구결과와 다소 상이하다. 특히 성적평가의 질과 관련된 문항 중 '성적평가 관리와 채점은 공정하다' 3.15점으로 나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86점보다 매우 높게 보고되었다. 이는 연구 대상자의 소속 간호교육기관이 2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시행하였거나 준비단계에 있어 대다수의 교수자는 성과기반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명확한 루브릭(Rubric)을 제시하였으며 학생들은 루브릭을 통해 자신의 학습 수준과 학습 성취도를 파악하게 됨으로서[23] 타 전공의 일반 대학생보다 성적평가 관리와 채점이 공정하다고 인식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교육성과는 평균 2.74점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8]의 2.80점과 유사하였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자기인식 정도가 가장 높고 인지적 역량 정도가 가장 낮게 나왔다는 점에서도 유사하였다. 또한 자기인식과 관련된 문항 중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3.04점, '자기존중감(자신에 대한 존경 및 가치 인식)' 3.06점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각각 2.93점, 3.03점과 유사하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존경하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24] 간호대학생이 졸업 이후에도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유

지할 수 있는 전략과 심리적 지지를 할 수 있는 추수지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사회심리적 역량에서는 '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능력'이 2.9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양한 인종 및 다문화의 이해와 수용능력'은 2.7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봉사의식'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7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데 비해 본 연구결과에서는 2.95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다소 상이하였다. 이는 타 학과에 비해 전공과 연계하여 자원봉사를 격려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감과 간호전문직에 대한 지식 향상을 유도하여[20] 봉사의식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봉사는 간호사의 사회적 책무의 일종임을 고려할 때 교수자는 학생들이 졸업 이후 사회 구성원으로 활약하면서 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당연시할 수 있는 전문직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장려하고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인지적 학습성과는 대상자의 성별, 학년, 소속 대학의 2주기 간호교육 인증평가 및 동아리 활동 유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비인지적 학습성과는 여학생에 비해 비인지적 학습성과가 높게 나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8]의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측정도구는 다르나 간호대학생의 학습성과는 남녀학생간의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배수현과 박정숙[11]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하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들이 휴학, 자퇴, 전과 등으로 인한 이탈이 적고[25], 추후 가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회적 고정 관념이 취업에 대한 강한 욕구로 이어져[26] 여학생보다 학습열의를 높여 비인지적 학습성과를 증가시켰으리라 사료된다.

전문대학 내 졸업 학년 간의 비인지적 학습성과 차이를 보면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4학년 2.91점으로 3학년 2.63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비인지적 학습성과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문대학 내의 학제 간을 비교한 연구가 미흡하여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4년제 학생이 3년제 학생보다 성취도 점수는 약간 높았으나 차이는 없었던 배수현과 박정숙[11]의 연구결과와는 상

이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교육성과의 하위요소인 인지적 역량 중 '문제해결능력' 문항에서 4학년 3.15점으로 3학년 2.70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t=2.38, p=.018$) 상급학년인 4학년에 올라가면서 문제해결능력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27]를 지지한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인 4학년이 전문대학 내에 3년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3+1 교육과정을 이수함에 따라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간호학과 기술이 늘어남으로써 이를 통합하고 적용함에 따라 학습성과도 높아졌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각 시기별로 교육과정의 구성 원리에 따라 교과목 배치 및 운영되어야 하며 졸업 시점에는 모든 학습성과가 간호교육기관에서 지정한 목표지점까지 성취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를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비인지적 학습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공 계열은 다르나 성과기반 교육 평가를 간호계보다 먼저 시행한 공학교육인증 사례를 살펴보면, 공학교육인증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의 경우 교육과정 이수체계에 따라 효과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며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신장되어 졸업 평균 평점이 향상되고 학업성취도가 높아짐을 보고한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28]. 간호교육인증평가는 학습성과 기반 교육체제를 구축 및 강화하고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체제를 마련하며 현장 실무 능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다[2]. 이와 같은 인증제는 교육의 질을 판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핵심적인 교육 평가 활동으로[29] 교육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성과 기반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인증기준을 토대로 계획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을 위해 간호교육기관에서는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비인지적 학습성과가 높게 나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8]의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측정 도구는 다르나

동아리 활동이 간호대학생의 간호학 학습성과 성취도를 향상시켰다는 배수현과 박정숙[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대학 생활의 일부분인 동아리 활동은 능동적으로 조직 및 운영되며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어 비교과과정 또는 비교과활동으로 분류되고 있다[2]. 간호교육기관의 인증평가를 위한 자체평가보고서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습성과 달성수준이 향상되어짐을 명확히 제시하고 동아리나 자원봉사와 같은 비교과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므로[2] 교육과정에서 성취하기 어려운 학습성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다양한 비교과활동을 격려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열의가 높을수록 학습경험이 높아지고 교육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학습열의, 학습경험과 교육성과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여[8]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높은 학습열의를 갖는 학생은 간호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및 비교과활동의 다양한 학습방법을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인지적, 사회심리적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교육성과를 향상시키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비인지적 학습성과를 높게 되리라 추측된다. 따라서 비인지적 학습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운영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과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대학의 지원 및 학습자원의 활용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과 대학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졸업 예정자의 학습성과 평가가 주요 화두인 현 시점에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발달이나 태도, 학습열의 등을 반영한 비인지적 영역과 함께 대학만족도, 학습 경험의 질을 포함한 비인지적 학습성과를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성과기반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과정과 비교과활동을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간호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의 비인지적 학습성과 성취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비교과활동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비인지적 학습성과 성취수준은 일반 대학생과 비슷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학년, 소속 대학의 2주기 간호교육 인증평가 및 동아리 활동 유무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학습열의가 높을수록 학습경험이 높아지고 교육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학 전공 학생들의 학습성과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교육과정과 비교과활동을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며, 이는 간호대학생의 학습성과 성취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내 간호대학생 3학년과 4학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모든 간호교육기관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비인지적 학습성과의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KCUE-Q1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의 비인지적 학습성과를 측정할 연구가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므로 추후 반복 연구에 의한 성취수준의 파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간호교육을 받은 결과인 학생의 학습성과로서의 능력을 직접 측정하고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지적 학습성과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참고 문헌

- [1] 이장익, 김주후,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학업성취도 관계성에 대한 분석 연구”, 직업교육연구, 제32권, 제2호, pp.227-246, 2012.
- [2]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성과기반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관리를 위한 교수 워크숍”, 2013
- [3] 서민원, 지은립, 황정일, 주연희, “대학생 학습성과 측정도구 구안 및 타당화”, 교육평가연구, 제26권, 제2호, pp.275-296, 2013.
- [4] 이기중, 박지혜, 박혜영, 김재현, “전문대학 교육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직업교육연구, 제30권, 제1호, pp.151-169, 2011.
- [5] 서민원, 배성근, “대학교육역량 평가 지표의 요인구조와 대학의 군집유형 분석”, 교육평가연구, 제25권, 제1호, pp.117-144, 2012.
- [6] E. Pascarella and P. Terenzini, “How college affects students : Volume 2, a third decade of research,” San Francisco, CA : Jossey-Bass, 2005.
- [7] 최정윤, 이병식, “대학생의 학습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 대학의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 연구, 제27권, 제1호, pp.199-222, 2009.
-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의 학생학습성과 측정도구 개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안) 설계”, 2013.
- [9] R. Pekrun, “The control-value theory of achievement emotions : assumptions, corollaries, and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practice,”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Vol.18, No.4, pp.315-341, 2006.
- [10] E. Wolfe and E. Smith, “Instrument of development tools and activities for measure validation using Rasch models : part I - instrument development tools,” Journal of Applied Measurement, Vol.8, pp.97-123, 2007.
- [11] 배수현, 박정숙, “간호대학생의 간호학 학습성과 성취도와 중요도 인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2호, pp.203-214, 2013.
- [12] 박영임, 김정아, 고자경, 정명실, 방경숙, 최명애, 유미수, 장혜영, “간호역량 규명을 위한 문헌 분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4호, pp.663-674, 2013.
- [13] 박인숙, 이훈영, “간호대학생의 셀프 임파워먼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및 성과의 관계”, 의료경영학연구, 제7권, 제2호, pp.13-26, 2013.

- [14] A. Baldwin, K. Bentley, T. Langtree, and J. Mill, "Achieving graduate outcomes in undergraduate nursing education : following the yellow brick road," *Nursing Education in Practice*, Vol.14, No.1, pp.9-11, 2014.
- [15] A. Mikasa, T. Cicero, and K. Adamson, "Outcome-based evaluation tool to evaluate student performance in high-fidelity simulation," *Clinical Simulation in Nursing*, No.9, pp.e361-e367, 2013.
- [16] M. Ryan, "Evaluating portfolio use as a tool for assessment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in graduate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27, No.2, pp.84-91, 2011.
- [17] R. Khalaila, "Simulation in nursing education : an evaluation of students' outcomes at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combined with simulations," *Nurse Education Today*, Vol.34, No.2, pp.252-258, 2014.
- [18] S. Hsieh and L. Hsu, "An outcome-based evaluation of nursing competency of baccalaureate senior nursing students in taiwan," *Nurse Education Today*, Vol.33, No.16, pp.1536-1545, 2013.
- [19] M. James and S. Brown, "Grasping the TLRP nettle : preliminary analysis and some enduring issues surrounding the improvement of learning outcomes," *The Curriculum Journal*, Vol.16, No.1, pp.7-30, 2005.
- [20] 권영미, "간호학생의 전공연계 봉사학습 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2호, pp.208-217, 2011.
- [21] 권영미, 주혜주, 조경미,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특성에 따른 욕구충족, 사회성, 전공만족도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0권, 제1호, pp.20-32, 2004.
- [22] 신미아, 안권숙, "치위생학, 간호학 전공 학생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직업준중감 조사", *한국치위생학회지*, 제12권, 제6호, pp.1090-1100, 2012.
- [23] 김혜란, "루브릭 제시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4호, pp.487-497, 2013.
- [24] 김명숙,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59-167, 2011.
- [25] J. Evans, "Men nurses : a historical and feminist perspectiv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47, No.3, pp.312-328, 2004.
- [26] 조보라, 유은아, 박수진, 조아라, 박수연, 박서영, 김동영, 김현용, 강경아, "간호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영향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4호, pp.1718-1727, 2013.
- [27] 지은주, 방미란, 전해진,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4호, pp.571-579, 2013.
- [28] 전호진, 김학진, 김영옥, "공학인증 및 평가 : 공학교육인증 졸업생과 비인증 졸업생의 취업률 비교 분석 : 서울시립대학교 사례", *공학교육연구*, 제16권, 제1호, pp.64-74, 2013.
- [29] 조성희, 강소연, "공학교육인증평가가 교육과정에 미친 연구", *공학교육연구*, 제15권, 제4호, pp.58-65, 2012.

저 자 소 개

김 옥 현(Ok-Hyun Kim)

정희원



- 197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대학 간호학과(간호학사)
- 198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간호교육석사)
- 2002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1986년 3월 ~ 현재 :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시뮬레이션, 간호교육

최 은 주(Eun-Ju Choi)

정회원



- 2002년 2월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6년 8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2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0년 4월 ~ 현재 :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아동간호학, 시뮬레이션, 간호교육